북스

Books

절대권력의 휘장 뒤에 펼쳐진 음모·쟁투·질시의 파노라마

후비(后妃) - 황제를 지배한 여인들

샹관핑 지음 한정민 옮김

중국을 지배한 것은 황제였지만 그 뒤에는 무수한 '여인'들이 있었다. 왕의 아내인 후비(后妃)들이 그들이다. 황제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빼어난 미모를 지닌 후비들은 남성 못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며 천하를 호령했다.

중국 후비의 수는 황제의 수백 배에 달했지만 역사에는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다. 지나치게 많은 후비들의 존재와 추행은 궁중의 어두운 면이기 때문에 역사가들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꺼렸기 때문이다.

국내에 '중국사 열전' 시리즈를 잇따라 소개하고 있는 중국 저자 샹관핑의 '후비-황제를 지배한 여인들'은 봉건 사회의 특수한 신분이었던 후비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후비들은 황제의 총애를 받으려 서로 질투하고 다툰다. 뛰어난 미모를 지녔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 나라를 망치기도 한다. 섭정을 통해 정권을 농락했던 후비들은 역사의 흐름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후비들의 권력 투쟁과 생존 경쟁은 중국의 거의 모든 황조의 후궁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었다. 후비들의 역사는 중국의 봉건제도와 그 시대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저자는 각 왕조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비교적 역사적 기록이 풍부한 후비들만을 골라 그들의 일생을 다뤘다. 역사의 중심에 섰던 자희태후, 측천무후 등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또 용기와 지략으로 국정을 도와 공을 세운 후비들도 많다.

중국 황실의 후비는 중국의 정치 상황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다. 사진은 중국 황실의 사랑을 소재로 한 영화 '황후화'의 한 장면.

특히 평민 출신의 절세 미인이 후비가 돼 한순간에 귀한 신분으로 바뀌는 과정이 흥미롭다. 소, 돼지를 도살하던 백정은 중국 역사상 가장 비천한 직업 중의 하나였는데 세 명의 후비가 백정의 딸이었다. 후한 영제 유굉의 황후 하씨, 진나라 혜제 사마충의 아내 사구, 송 명제 유욱의 귀비 진묘 등이다.

후비가 되기 위해 뇌물로 관리를 매수해 궁에 들어갔고(하씨), 직접 미녀들을 찾기 위해 민가를 뒤진 황제의 눈에 띄어 후비로 간택됐다(진묘).

하지만 후비들이 모두 아름다웠던 것은 아니다. 추한 외모 때문에 황제로부터 외면받았던 후비들도 많았던 것. 미모가 빼어나지 않은 여인들이 미인들을 제치고 황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권세를 쥐고 있던 집안의 영향력 때문이었다.

남송 이종 조윤의 황후 사도청은 못생긴 외모로 유명(?)하다. 사도청은 피부가 검고 거칠었다고 한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재상이었기 때문에 황후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외면하고 다른 후궁들을 총애하는 왕을 곁에 두고 평생을 살아야 했다.

후비들은 권력의 중심에 섰지만 대부분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신세로 살아야 했다. 봉건시대 여성의 지위가 남성(남편과 아들)에 의해 정해졌고, 후비들 또한 남자들의 흥망성쇠에 따라 삶과 죽음을 함께해야 했기 때문이다. 외척의 세력을 배척하기 위해 왕이 죽으면 후비를 함께 죽이거나 순장하기도 했다. 명나라 후궁 이었던 조선 후비와 여자들이 죽은 황제를 따라 순장되는 과정 등도 눈길을 끈다.

한편 샹관핑은 지난 1월 중국 역대 황제 583명의 일화를 담은 '황제-제위의 찬란한 유혹'을 국내에 소개하기도 했다. 〈달과소·2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삼대 걸친 여성의 삶 '하우스키핑' 출간

감각적인 언어들로 채워진 가벼운 소설에 조금 싫증이 났다면 인간의 내면을 성찰한 작품 한 편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헤밍웨이 문학상 수상작이자 '타임'지가 선정한 100대 현대 영문소설에도 포함됐던 '하우스키핑'(Housekeeping)이 국내에 출간됐다.

소설은 커다란 호수가 있는 핑거본이라는 허구의 마을을 배경으로 루스와 루실 자매, 어머니, 외할머니에 이르는 삼대에 걸친 여성의 삶을 그렸다.

영문학 박사인 메릴린 로빈슨이 결손가정에서 자란 주인공 루스가 겪는 가족상실의 아픔과 고독감을 서정적인 문체로 성장통의 아픔을 그대로 전해준다.

〈랜덤하우스·1만2천원〉

/이은미기자 emlee@

천년의 선비를 찾아서

이성원 지음

안동을 거닐며 듣는 종택과 선비 이야기

'사이버 제사'까지 등장한 요즘 시대에 도포 쓴 어른들과 함께 1년에 수십차례 제사를 지내는 종택에서의 삶을 고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퇴계 이황 등 수많은 학자를 배출, 선비의 고장으로 불리는 안동에는 이들을 모시는 종손과 종부가 생활하는 종택이 47곳이나 된다.

조선 중종 때의 문신인 농암 이현보(1467~1555)의 17대 종손 이성원이 쓴 '천년의 선비를 찾아서'는 왜 안동에는 종택이 많이 남아 있는지, 선비 정신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

저자는 "21세기에 유가적 전통을 지키며 사는 종손의 책무가 버거워 한때 방황도 했었지만 이제는 그 '선비정신'에 매료돼 유가적 삶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책은 다양한 선비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이 선비정신인가를 보여주고 안동 문화의 핵심인 종택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훌륭한 인물'의 출현은 종택의 탄생으로 이어졌고, '훌륭한 조상'을 본받고자하는 후손들의 노력 때문에 '한국의 정신문화의 수도'로 불리는 지금의 안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6·25 당시 불타버린 성재 금남수(1530~1604)의 종택을 복원하기 위해 그의 후손들이 이불과 식량을 짊어지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 1년 동안 종가 복원에 힘썼다는 일화를 통해 안동 사람들이 조상을 섬기고 전통 보존을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도 알수 있다.

유일재 김언기(1520~1588)의 종부인 이후웅 여사를 통해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유일재의 꼿꼿함도 느껴볼 수 있다. 벼슬에 연연해 하지 않았던 후조당 김부필(1577~1644)의 고매함은 그의 종택에서도 드러난다.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종가의 전통을 꿋꿋이 계승해온 종손과 종부의 강인함과 역사와 세월을 아우르는 꼿꼿한 자존심은 바로 선비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한다.

책은 현대인들에게 '훌륭한 사람 되기'와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선비정신을 전해주며 어떻게 살아야할지 일깨워 준다.

〈푸른역사·1만5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새책

2008 신춘문예 당선동화=광주일보 2008 신춘문예 동화부문 당선작인 김순아의 '고슴도치의 섬'을 비롯해 강원일보, 경남신문, 국제신문, 대구매일, 대전일보, 동아일보, 무등일보, 문화일보, 부산일보,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 등 13개 신문사의 2008년 신춘문예 동화 당선작을 한데 엮었다. 〈동쪽나라·9천500원〉

그래도 사랑이다=시인 천양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삶의 경험을 모은 산문집. 한번뿐인 삶,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준다. 꽃과 새를 주로 그려온 화가 김일화의 그림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생각의 나무·9천800원〉

부모가 학교다=독일의 작은 공동체 마을인 부르더호프 공동체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가 전하는 자녀교육법. 아이 양육에 관해 조언을 구했던 부모들로부터 받은 수백 통의 편지와 교사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펴냈다. 〈달팽이·9천800원〉

중국 근대의 풍경-화보와 사진으로 읽는 중국 근대의 기원=문정진 등 중국문학과 중국 문화사 전공 학자 8명이 근대 중국의 사회상을 분석했다. 청나라 말기(1884~1898년)에 발행된 중국 최초의 근대 그림신문인 '점석재화보'에 실렸던 당시 중국을 그린 동·서양의 회화와 사진들도 함께 수록됐다. 〈그린비·3만5천원〉

이별 잦은 시절='페미나 상' '알베르 카뮈 상' 등 프랑스 문학의 권위 있는 상을 석권한 작가 로제 그르니에(89)의 소설집. 미모의 간호사와의 농담에 정신이 팔린 인턴의사에게 마취도 못한 채 상처 봉합 수술을 맡긴 늙은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한 시간 동안의 바느질' 등 모두 10편의 단편이 실렸다. 〈현대문학·1만원〉

두 개의 눈을 가진 아일랜드=임진평 영화감독의 음악 다큐멘터리 '두 개의 눈을 가진 아일랜드'에서 다하지 못한 이야기와 풍경을 담았다. 아이리시 음악 밴드인 '두 번째 달-바드(BARD)' 멤버들과 함께 지난해 여름 떠난 아일랜드 음악 여행 이야기다. 〈위즈덤 피플·1만2천원〉

혁명의 시간-러시아 혁명 120일 결단의 순간들=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의 10월 혁명을 다룬 연구서. 볼셰비키 당의 집권 요인을 음모적 성격과 철저한 권위적 위계에서 찾던 서구의 보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혁명이 눈 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르포르타주 문학 형식을 빌려 혁명을 보여준다. 〈교양인·2만9천원〉

나폴레옹 놀이=독일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크리스토프 하인의 범죄 심리 소설. 시시각각 삶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지루함'에서 벗어나고자 생의 매순간을 '놀이' 하듯 살아가려 했던 어느 인텔리 변호사의 낯선 행적을 냉소적인 유머로 표현했다. 〈작가정신·1만원〉

연필로 고래 잡는 글쓰기='우아하고 감상적인 일본야구' 등 독특한 소재와 톡톡 튀는 상상력으로 수많은 독자층을 확보한 다카하시 겐 이치로가 기초부터 실전까지 여덟 단계에 걸쳐 글쓰기 방법을 소개했다.

〈웅진 지식하우스·1만원〉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첨단월계공인중개사
☎(代)972-4585 핸 011-604-6205
(첨단지구 부영A LC빌딩 시거리)

★급매매★
◎첨단 인근 비아동 일반주거지역 1000평 다세대주택, 룸투창고, 복지실버시설
◎첨단중심상업지역 200평, 매 280만원 (공시지가 260만원), 230평

첨단중심 상업매매
·정부지방청사 2008년 개청지 앞 314평
·부영·호반아파트 정문 앞 145, 135평
·빅마트·호수공원 부근 유흥지역100평

첨단 원룸 건물 급매
·대68 건145 원룸17 쓰리룸1개 보7000만 월495만 매5억3천만
·대70 대110평 원룸15개 보2000만 월480만 매4억8천만
·대70평 건120 원룸6 투룸3 주인 방3개 보1억2천만 월180만 매4억1천만
·대68평 건127평+주차장 투룸4 원룸8 보8800만 월300만 용4200만 매4억7천만

첨단 인근 녹지 급매매
·신가동 부영Ⓐ 부근 생산녹지 900평
·안청동, 비아 중흥Ⓐ 부근 생산녹지 900평
·도천동 공단 8번로부근 450평 700평 공장, 창고 적합
·북구 지야동 30m도로 인근 전후면 도로접 가든, 찻집, 창고, 공장 적합

고흥신도시공인중개사
☎(061)833-6669
핸 010-8004-6669

섬 ● 완도개인독섬
별장.농장등.
다용도개발가능
한필지6천200평
(마을앞)
평당/20만원.
(교환가능)

고흥바닷가 매실밭1300평
가든.별장부지 평당5만원

고흥농장.부지최적3천평
차량진입가능.평당2만원

상가부지.
고흥조선소. 버스터미널옆
1300평. 평당 50만원

금보부동산컨설팅
☎(代)281-8949 핸 011-602-2233
(산수동 543-51(두암타운입구 삼거리)

▶토지매매
·나주시 안동동 관리지역 대지 15,525㎡ 전입로 있음 공장부지 등 적합 매매가 4억
·북구 삼각동 주거지역 면적843㎡ 매매가 평당 4억
·광산구 임곡동 생산녹지 홀 1,941㎡ 매매가 2억5,000만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산83,558㎡ 국도변접 농림지역 매매가 1억5,000만원
·북구 각화동 3동 주거지역 면적 427㎡ 매매가 1억7,000만원
·담양군 금성면 산포리 관리지역 임야 1,400㎡ 2차선접 전원 주택지 최적 매매가 1억5,000만원
·담양군 남면 구산리 2차선 국도접 관리지역 6,869㎡ 매매가 1억6,000만원
·광산구 월곡 월동소재지 2종주거지역 995㎡ 매매가 1억3,000만원
·서구 화정동 일등지 228㎡ 투룸 12세대가 편 매매가 1억2,000만원

▶건물매매
·북구 두암동 상평동 시가리 코너 대지 1,023㎡ 건평 5,473㎡ 세보증금 20억에 월4,000만원 용지 18억 매매가 60억
·북구 우산동 두동도서관 건너편 대지 208㎡ 건평379㎡ 세보증금 6,000만원 월800만원 매매가 2억7,000만원
·전대 정문앞 대로변코너 대지176㎡ 건물 538.2㎡ 세보증금 8,700만원에 월180만원 매매가 4억
·북구 풍향동 교대앞 대로변 대지 195.4㎡ 건물 697.3㎡ 세보증금 8,000만원에 월250만원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5억
·북구 일곡동 상업지역 대지 378㎡ 건 1550㎡ 지하1층 지상5층 세2억5,000 보증금에 월800만원 매매가 11억
·북구 운암동 대지 300㎡ 건평 998.6㎡ 지하1층 지상5층 세보증금 5억 3,000만원에 월440만원 매매가 14억
·북구 두암동 대로변 760㎡ 건평 4,468㎡ 세보증금 14억에 월 3,000만원 매매가 56억
·서구 농성동 대로변코너 대 512㎡ 건평 1,139㎡ 지하1층 지상4층 세보증금 9,000만원에 월315만원 용지 5억포함 매매가 10억
·북구 중흥동 모아아파트앞 대로변 대지 145.3㎡ 2층 135.2㎡ 매매가 1억 4,000만원
·북구 용봉동 현대APT옆분양 대지 370㎡ 건평 약230평 (단층 조립식) 세보증금 4800만원/월180만원 매매가 4억3,000만원
·북구 용봉동 우산주공 정문앞 식당건물(현재성업중) 대지 206㎡ 건평 132㎡ 최고모지 매매가 4억3,000만원

▶급매 고시원매매
·북구 용봉동 상대동편 대지 332㎡ 건평 902㎡ 건물 2종A. 3층 실88실 월수입 약1600만원 용지 3억8,000만원 매매가 8억5,000만원

▶주유소및 부지매매
·북구 오치동 20m도로변 대지1,480㎡ 주유소 설입종 월매출 약7억 매매가 14억
※주유소, 충전소, 물건다량보유, 물건접수환영
※원룸, 고시원 물건다량보유 상담요

법원경매전문
지지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옆)
☎062-226-0047~8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아파트/빌라

소재지	명칭	면적/층	감정가	최저가
오치동	주공	17/14층	3천9백	3천1백
치평동	현대	32/5층	1억4천	1억9백
두암동	무등파크	23/16층	6천5백	4천5백
치평동	금호, 대우	24/13층	8천8백	6천1백
쌍촌동	성우행복천지	15/1층	1억6천	8천9백
화정동	한양	32/12층	1억1천	7천7백
송정동	리인	24/7층	5천6백	3천9백
용봉동	중흥	49/5층	1억5천	1억5백
양동	금호	26/6층	7천7백	5천4백
두암동	무등파크	16/16층	6천5백	4천5백
운림동	보리빌	7/2층	2억	1억1천

▶상가건물/모텔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지산동 시우니	156/401	14억	4억3천
중흥동	39/41	1억2천	6천7백
신안동	50/234	5억6천	3억1천
산수동	424/406	18억	8억
신안동 모텔	58/223	5억6천	3억1천
누문동	41/34	4억7천	2억1천
송정동(옛 모텔)	97/142	5억2천	2억3천

▶주택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우산동	45/58	1억2천	5천4백
잠성	842/163	9천4백	5천2백
문흥동	57/31	1억5천	6천8백
담양	157/29	5천8백	3천9백
쌍촌동	100/27	1억6천	1억2천
산수동	38/21	7천5백	4천2백
담양	190/42	3천9백	2천2백

▶원룸/상가주택/오피스텔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원룸	월산동 117가구	79/123	3억	1억6천
	월계동	100/188	4억3천	3억
	일곡동 127가구	91/224	5억3천	2억3천
상가주택	산수동	191/200	8억	3억5천
	충장동	28/124	4억7천	2억9백
	학동	156/81	5억5천	3억8백
	비아동	66/116	2억8천	2억
	중흥동	94/127	4억8천	3억8천
	지산동	483/282	10억7천	4억8천
	소태동	112/199	5억4천	2억4천
	산정동	69/168	2억5천	1억4천
	화순	77/134	3억3천	2억3천
근린상가	임동	8/1층	4천8백	3천3백
	월계동	62/4층	3억1천	1억3천
	화정동	11/3층	1억2천	4천3백
	곡성	60/2층	1억1천	6천5백
	내방동	73/3층	1억8천	6천8백
	전월동 현대	57/3층	1억7천	7천9백
	쌍암동	82/2층	4억6백	1억5천
	두암동	61/2층	1억1천	3천9백
오피스텔	우산동	28	7천9백	3천5백
	치평동	18	6천1백	2천7백
	구동	12	3천7백	2천7십
	학동	12	2천2백	1천2백
	치평동	30	1억3천	5천9백

▶토지/공장

소재지	대/건	감정가	최저가
화정동	82	1천9백	1천5십
광산구 지죽동	480/465	11억	6억2천
광산구 용동	106	1억9천	1억6천
나주 남평	599/339	3억2천	2억2천
장성	174	9백	5백
담양 공장	883/386	3억1천	1억7천
영암	361	6천5백	4천6백

법원경매 전문회사
-늘 앞서가는 사람들- (주)옥선코리아
(법원경매입찰장 앞) 상담전화 : (062) 222-8446

성공적 파트너 / (주)옥선코리아 무료상담
권리분석, 명도 유치권내역서 및 성립여부, 낙찰가예상분석 예고등기,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가장임차인 등 차별화된 상담을 기다립니다. (평으로환산시 ㎡×0.3025)

▶주택
대표이사 010-3666-8446

소재지/층/면적(㎡)	감정가	최저가
농성동/대10건98.5	7746만	5423만
금동/대129건65.4	9018만	6312만
우산동/대149건193	1억2200만	5440만
소태동/대411건300	2억8200만	1억5000만
월계동/대220건217	1억7200만	1억2100만
문흥동/대188건101	1억5400만	6860만
쌍촌동/대180건233	1억5320만	8580만
두암동/대138건136	8950만	6265만
월산동/대147건171	1억3422만	7520만
양림동/대139건113	9130만	6400만

▶아파트
대표이사 010-3666-8446

소재지/명칭/면적(㎡층)	감정가	최저가
화정동/한양/105(32)	1억1000만	7700만
치평동/금호대우/79(24)	8800만	6160만
금호동/대주/82(25)	8400만	5880만
진월동/한신/79(24)	7500만	5250만
운남동/주공3단지/69(21)	5000만	3500만
문흥동/대188건101	8500만	5950만
용두동/임산타운/79(24)	6200만	4340만
삼각동/삼익/105(32)	7500만	5250만
일곡동/풋내/135(41)	1억8000만	1억3300만
용봉동/중흥/158(48)	1억5000만	1억5000만

▶근린시설/근린상가 상담

소재지/물건개요/면적(㎡)	감정가	최저가
나주송월동건설사무실/대210건615	4억5400만	2억5400만
오치동(창고부지)/대945건660	5억9127만	4억1388만
산안동/사무실겸학원/대168건774	5억5700만	3억1200만
유동아동동산대부지점/대1052건944	2억7000만	1억5100만
중흥동/사무실겸학원/대354건1288	10억8000만	4억5100만
화순읍읍리/축산단지용/대76건493	8억3151만	3억7200만
불로동/웨딩산학원/대198건775	6억2219만	4억8550만

▶근린주택/다세대(빌라)/원룸 상담

소재지/물건개요/면적(㎡)	감정가	최저가
매곡동/사우니월스/대2058건5000	61억3300만	27억4800만
중흥동/근린주택,3층/대309건417	4억7600만	3억8085만
월계동/근린주택,3층/대282건427	2억8000만	2억3000만
매곡동/학원겸용/대426건1008	8억8000만	2억8500만
산수동/남양빌라/201(61평)	2억	1억1200만
일곡동/원룸,10가구/대301건740	5억2800만	2억4400만
지산동/원룸,107가구/대880건744	5억4000만	3억7800만

▶토지

소재지/지목/면적(㎡평)	감정가	최저가
담양봉황리/답/1879(508)	1억8500만	1억3242만
산포면나가리/답/5279(1597)	2억2700만	1억5890만
화순한천면/답/1778(537)	1800만	1310만
담양군용면/대지/957(289)	7200만	5030만
화순동면/전/4558(1379)	5750만	2060만
금천면원곡리/답/1534(464)	3835만	2684만

▶공장

소재지/물건개요/면적(㎡)	감정가	최저가
장흥읍/주남공단/대1712건1343	9억3000만	6억5100만
지죽동/명동공장/대1589건1539	11억	8억2700만
용동/명동공단/대1862건1102	8억2380만	5억7680만
용동/명동공단/대3539건1398	12억2490만	8억5800만
장성월峯면/대848건600	3억8400만	1억7200만
나주동강면/대4798건1362	4억5570만	3억1900만